

복음선교성 초기 선교부 부장관이 오사카 다카마쓰 대교구 하느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메시지

오사카 다카마쓰 대교구의 형제자매 여러분

신설되는 오사카 다카마쓰 대교구의 교구장으로 토마스 아퀴나스 마에다 만요 추기경이 취임하는 중요한 때에 저의 기도 안에 여러분 모두를 기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바램은 오사카 대주교구와 다카마쓰 교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위한 풍부한 영적 혜택을 가져오고 두 교구가 힘을 합침으로써 강력한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오사카 대주교구의 교회와 다카마쓰 교구의 교회는, 사목 활동이나 인적 교류 등, 여러 면에서 오랜 세월이 걸쳐 협력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 사이에 차이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다양한 풍요로움으로 새롭게 설립된 우리 교회의 활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일치로 향하는 여정에서 저는 새 대교구의 보호자인 목주의 성모님을 여러분의 모범으로 제안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겸허하게 대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삶에 대한 신의 신성한 계획을 받아들이셨으며, 확고한 신앙으로 자녀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인내심 있게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때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성모님의 생애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것, 시련을 견디는 것,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또한 진정으로 시노도스적인 교회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경의를 가지고 귀를 기울일 때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각 구성원에게 주어진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기치 못한 시련에 맞설 때 하느님은 약속된 부활의 영광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진지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통해 힘을 주십니다. 성모님을 본떠 거룩한 목주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지상 순례 여행은 틀림없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모 마리아가 항상 여러분들을 그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일본의 거룩한 순교자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이 주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 루이스 안토니오 G 타그레 추기경
2023년 9월 7일 바티칸에서
+ 포르투나투스 누와추쿠우 대주교